

러-벨 합작기업 BPC의 해체 배경과 전망

작성자 : 민지영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10월 28일

- `지난 8월 26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랄칼리(Uralkali) 대표를 체포하면서 슬라브 ‘형제국’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.
- `이는 우랄칼리가 7월 31일 러-벨 합작기업 BPC(Belarus Potash¹⁾ Company) 설립 8년 만에 해체를 선언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.²⁾
 - 우랄칼리는 지난 7월 벨라루스칼리(Belaruskali)가 단독으로 중국과의 비료계약을 한 것을 지적하며, 합작기업 탈퇴 결정을 발표했음.
- 우랄칼리 대표 체포 이후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대해 각종 금수 조치를 취했음.
 - 8월 28일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음.
 - 30일에는 벨라루스에서 번지고 있는 ‘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’를 언급하며 벨라루스산 돼지고기, 돼지고기 가공품, 돼지 사료 등에 대해 잠정적 금수조치를 취함.
 - 또한, 9월 석유 공급분을 20% 축소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내린바 있음.
- 이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10월 11일 러시아가 벨라루스 화학제품(유기용제)에 부가하는 수출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유라시아단일경제공간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.³⁾
- 양국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.
 - 우랄칼리의 대표가 권력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, 최대 10년 형을

1) Potash는 탄산칼륨 성분으로 이루어진 주요비료 중 하나임.

2) 한 증권거래 전문가는 이는 마치 ‘사우디아라비아가 OPEC을 탈퇴하는 것’과 같은 사건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. ("It is as if Saudi Arabia decided to leave OPEC - oil prices would fall immediately," said Dmitry Ryzhkov, equity sales trader at Renaissance Capital.)

3) KOTRA Global Window, ‘탄산칼륨 전쟁, 러-벨라루스 관계 악화되나,’ (10.15.2013)

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.

- 9월 24일 양국정상이 회동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, 벨라루스는 우랄칼리 대표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인 케리모프(Kerimov)⁴⁾ 및 4명의 회사직원에게 대한 영장을 인터폴에 신청한 상태임.⁵⁾

■ BPC는 2005년 우랄칼리와 벨라루스칼리가 합작으로 설립한 세계비료시장의 40%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회사였음.⁶⁾

- 이후 200억 달러규모의 세계비료시장에는 BPC와 함께 Canpotex, Agrium, Mosaic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었음.

- 두 기업 간 갈등은 우랄칼리가 2010년 러시아 최대 칼륨회사인 실비니트를 인수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음.

- 2010년 러시아 올리가르히 케리모프가 우랄칼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기업의 국내외 비료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M&A가 이루어졌음.

- 케리모프는 2011년 루카센코에 50억 달러의 뇌물과 함께 100억 달러에 벨라루스칼리 매각을 제안했으나 당시 루카센코는 300억 달러를 요구하며 거절했음.⁷⁾

■ 세계비료시장의 카르텔의 해체로 시장구조의 변화와 비료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량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- 해체 선언 이후 우랄칼리를 비롯한 세계비료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였으며, 비료가격이 25~30%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전문가들은 2013년 초반에는 톤당 400\$대를 기록하였으나 300\$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⁸⁾

- 한편, 탄산칼륨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, 인도 등에는 이러한 분쟁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

4) 케리모프의 우랄칼리 지분은 33%임.

5) Bloomberg, "Belarus Wants Russia to Charge Uralkali CEO Before Any Handover," (10.11.2013)

6) 2005년 당시 벨라루스칼리는 35%, 우랄칼리는 13%의 세계비료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음. 최초에는 두 기업의 지분이 50:50이었으나 2008년 벨라루스 철도 연합회가 5%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후 5:45:50의 지분구조가 유지되었음. Belarus Potash Company, <http://www.belpc.by/en/about/>

7)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, "With Belarus's Economy In Balance, Lukashenka Stands Up To Russia," (09.07.2013)

8) Bloomberg Businessweek, "The Day Everything Changed in the World," (06.30.2013)

것으로 보임.

- 중국투자공사(CIC)는 우랄칼리의 지분 12.5%를 매입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으며,⁹⁾ 인도는 벨라루스칼리의 지분 20% 매입을 고려하고 있음.¹⁰⁾

- 이 갈등은 러시아가 추구하는 유라시아경제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단적인 예로 판단됨.

9) MK뉴스, “中 국부펀드 러시아 우랄칼리 2대주주로,” (09.25.2013)

10) Agweb, "India Seeks to Buy 20% Belaruskali Stake," (17.09.2013)